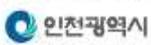


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배포일자	2021년 4월 12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 스마트도시 담당관	담당자	• ICT인프라팀장 신용식 ☎440-8931 • 담당자 신은선 ☎440-8933	
<b>사진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<b>보 도 시 점</b>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더 이상 안전에 구멍은 없다!**

**인천시, 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’ 구축 본격 시동**

- 인천시 전 지역 스마트 안전망 가입! -

- 1만6천개 CCTV 연계, 경찰·소방서 등과 실시간 감시 및 대응 -

인천시가 ICT(정보통신기술)기반의 방법, 교통, 환경 등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시전반에 대한 실시간 감지, 분석, 대응 가능한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4월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착수보고회’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보고회에서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인천경찰청, 인천소방본부, 구·군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.

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안전, 교통,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해 지능화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시는 통합플랫폼 구축과 병행해 지난 3월에는 시 전 지역의 구·군이 ‘스마트도시 안전망’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4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신속하게 교부했다.

‘스마트도시 안전망’ 가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인천시 전 지역의 폐쇄회로(CC)TV를 경찰·소방·법무부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하다.

이에,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 현장 영상을 경찰·소방·법무부와 공유함으로써 즉각적인 상황 파악과 출동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시민 안전 대응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.

이 밖에도 ▲경찰청 수배차량 검색지원, ▲전통시장 화재 감시 등 교통, 환경, 시설물관리를 지원하며 각종 시스템 연계 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.

본 사업은 지난해 10월, 시민시장이 직접 뽑은 ‘10대 인천형 뉴딜 과제’에 선정된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다.

통합플랫폼 구축에는 재난관리기금 4억 5천만 원을 포함해 국비 6억, 시비 6억으로 총 16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.

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“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경찰·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완성도 높은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”이라며

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스마트도시 운영에 기본이 되는 시스템인 만큼 구·군에서도 자체적인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심을 가져줄 것” 을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